

#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강좌 개발 및 실행 연구

<미디어와 영화로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를 중심으로

Research o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Global Korean Studies Major Courses to Enhanc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 Focusing on the Cours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Media and Film>

오현아\*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학부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전공 강좌로서의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 양상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음식'을 주제로 한국 영화를 선정하여 그 영화에 나타난 한국어와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리틀 포레스트>(2018)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하였다. <리틀 포레스트>(2018)는 일본 영화가 원작이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이 등장하고, 서양 음식도 함께 등장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배경으로 취업 혹은 연애로 고뇌하고 성장, 변화하는 다양한 청춘들의 모습이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다양한 한국 음식의 등장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영화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은 Deardorff(2006)의 파리기둥 모델처럼, '지식' 차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 확장'을 바탕으로 '기능' 차원에서 '영화 속 인물의 대사나 행동에 주목'해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고 '자신의 모국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타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원활한 의사소통,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심화'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삶의 다양한 고민과 해결 방식, 인생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아닌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영화를 활용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 한국어 문화교육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핵심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강좌, 리틀 포레스트, 한국어, 한국 문화, 공감, 연대

- 차례**
1. 들어가며
  2.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개설 목적 및 특성
  3.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양상 분석
  4. 나오며

## 1. 들어가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는 가상 융합학과인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필수 과목으로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2022학년도 2학기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K 대학교의 학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간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의 일환으로 연구자가 기획한 강좌이다. 2022학년도 2학기에는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상호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2023학년도 2학

기부터는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글로벌 한국학과 복수 전공, 부전공/비전공)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부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전공 강좌로서의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 양상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수업 사례 연구로는 배고운과 최지영의 연구<sup>1</sup>를 들 수 있다.

배고운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으로 탄뎀 수업을 사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여기서 탄뎀 수업은 외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학습자가 일대일 즉, 면대면으로 만나 학습하는 것이므로 목표어, 목표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 형태라고 보았다. 이에 세 학기 동안 탄뎀 수업을 수강한 외국인 학습자 33명과 한국인 학습자 35명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양상을 살펴보고, 또한 탄뎀 수업 운영 방식과 학습자들의 성취도와 만족도에 대해 분석해 제시하였다.<sup>2</sup>

최지영은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선택 수업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CC)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내용 중심 수업(Content-Based Instruction, CBI)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목표로 서울 소재 한 대학에 개설된 <한류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교양 선택 교과목을 기반

으로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활동을 고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팝, 웹툰과 게임을 분석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영화 분석 활동은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생충>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와 계급 불평등, <소원>에서 나타난 아동 대상 성폭력 문제, <셀러브리티>에서 나타난 SNS 의존과 경쟁 사회 이면의 심리적 불안, <파묘>에서 나타난 현대인의 불안과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 <택시 운전사>에서 나타난 군사 정권의 폭력성과 언론 통제 등이 토의의 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설계하고 운영한 내용 중심 수업이 유학생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이 언어 능력 향상을 넘어 문화적 통합 및 상호작용 능력 개발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3</sup>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수업 사례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며, 탄뎀 수업과 교양 선택 수업 사례는 있었으나 전공 수업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지영에서는 문화교육 내용이자 대상으로서의 영화가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관련해 다루어지고 있음<sup>4</sup>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전공 수업 사례로 ‘음식’을 주제로 일상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 내용을 추출할 수 있는 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점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목표란 무엇인가? 민현식에서는 문화교육을 통한 한국어 능력, 모문화와의 비교 및 객관적 평가 능력, 국가간 교류에 기여 등을

1 배고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사례: 탄뎀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1(3), 국제한국어문화학회, 2014, 151~169쪽; 최지영,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 유학생 대상 교양 수업의 설계 및 운영 사례 연구」, 『대학교양교육연구』 10(2), 배재대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25, 187~222쪽.

2 배고운, 앞의 논문, 151~169쪽.

3 최지영,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 유학생 대상 교양 수업의 설계 및 운영 사례 연구」, 『대학교양교육연구』 10(2), 배재대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25, 187~2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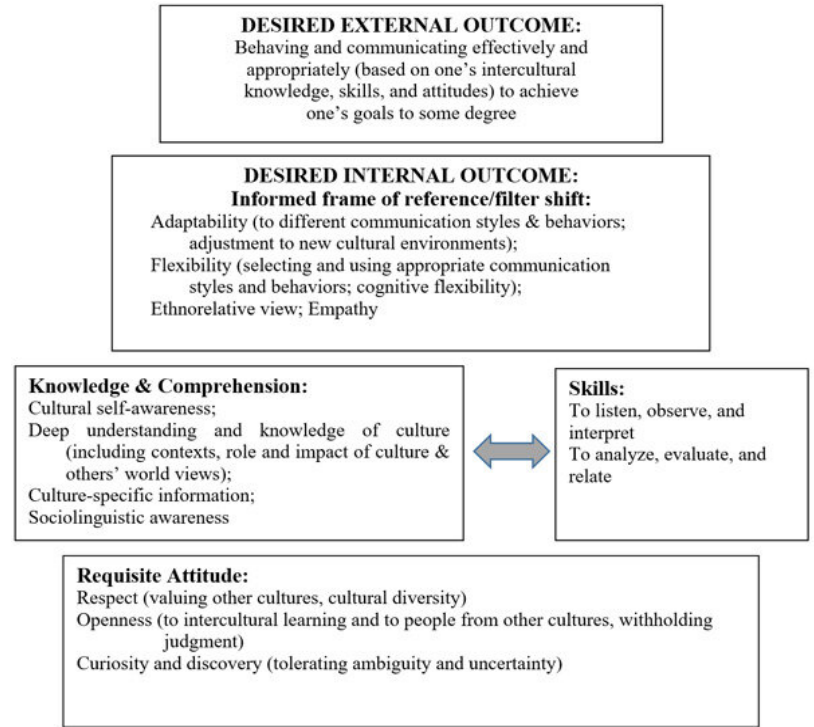
4 위의 논문, 187~222쪽.

문화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sup>5</sup> 그리고 박영순에서는 민현식과 비슷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언어적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한국문화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sup>6</sup>

문화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목표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언어적인 능력 향상에만 한정되어 있어도 안 된다.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가치관, 정서 등의 이해를 통해 한국과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어가 사용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모어와 모문화와의 비교 및 고찰을 통해 문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과 자국 문화를 비교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sup>7</sup>

다음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란 무엇인가? Deardorff에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문화 간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행동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로 ‘문화 간 지식’, ‘기술’, ‘태도’를 소개<sup>8</sup>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eardorff의 피라미드 모델에서 ‘태도’는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있으며, 타문화에 대한 존중, 열린 마음, 학습 기회로서의 호기심, 발견 등



<그림 1>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피라미드 모델(Deardorff, 2006: 254)

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태도는 지식과 기술의 바탕이 된다. 다음으로 ‘지식’은 문화적 자기 인식,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 특정 문화에 대한 정보, 사회언어학적 인식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술’에는 듣기, 관찰, 평가, 분석, 해석, 연관, 비판적 사고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는 문화 간 지식, 기술, 태도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적응성, 유연성, 인종 상대적 관점, 공감 등의 ‘내적 결과’를 생성해 내며, 이 내적 결과는 다시 외국어 학습의 궁극적 목표인 원어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성공하는 ‘외적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sup>9</sup>

이 연구에서는 Deardorff의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주목하여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선택 과목으로서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개설 목적 및 특성을 살펴보고, 3장에서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5 민현식, 「(한)국어 문화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59~103쪽.

6 박영순,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2006.

7 이승연·이유경·최은지·이선영, 『한국문화교육론』, 도서출판 하우, 2021, 52~53쪽.

8 Deardorff, D. K.,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of International Education* 10, 2006, p.254.

9 이승연·이유경·최은지·이선영, 앞의 책, 48쪽.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1년에 가상 융합학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K대 글로벌 한국학과에서는 부전공과 복수 전공을 개설하였다.

## 2.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개설 목적 및 특성

이 장에서는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개설 목적 및 특성을 1)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교과목의 신규 개설 차원, 2) 한국 학생들을 위한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 교과목의 신규 개설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글로벌 한국학과의 진로 트랙은 인문 사회, 경제 경영, 문화예술, 국제협력으로 구성되는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는 문화예술 트랙에 속한다. K대 글로벌 한국학과의 진로 트랙과 편성 교과목은 <표 1>과 같다.

K대 글로벌 한국학과에서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표 1> K대 글로벌 한국학과의 진로 트랙과 편성 교과목

트랙 (진로 분야)	목표 직종	이수 목표	편성 교과목		
			단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1) 인문 사회	국제교류 활동가 한국학 전문교원 한국학 전문연구원	한국사회를 세계적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방향과 전망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통찰력을 지닌 한국전문가 양성	기초	(신규)	Introduction to Global Korean Studies
			기초	(신규)	Politics, Foreign Policies and Unification of Korea
			기초	(신규)	Modern History of Korea and East Asia
			기초	(신규)	Korean Philosophy and Way of Living
			기초	(신규)	Korea's Modernization and Social Development
(2) 경제 경영	글로벌 통상전문가 글로벌 지역전문가 글로벌 마케터 글로벌 HR전문가 글로벌 협상전문가	세계경제시스템 하의 한국 경제·무역통상 구조 및 정책 이해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분석	기초	(신규)	Korea's economy in the world
			기초	(신규)	Introduction to Business and Management in Korea
			기초	(신규)	Special Topics in Korean Trade and Investment
			기초	(신규)	Industrial Development and Data Science
(3) 문화 예술	한국어 전문교원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한국의 전통·현대 문화예술 발전과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	심화	(신규)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Media and Film
			기초	(신규)	Survey of Transnational Culture and Literature
			기초	(신규)	Korean Wave and Korean Culture I
(4) 국제 협력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개발 NGO 전문가 환경 NGO 전문가	글로벌 위기에 대해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협력사업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 정립	기초	(신규)	Understanding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기초	(신규)	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기초	(신규)	Climate Change: Issues and Policies

### 2.1.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교과목의 신규 개설 차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화 외교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시각과 역량을 갖춘 융합형 한국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K대 글로벌 한국학과는 기존의 한국어 중심, 인문학 중심의 한국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문 사회·경제 경영·문화 예술·국제 개발 협력 분야를 망라하여 한국 사회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융합형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어 능력과 문화적 유연성

관심을 가지고 유학 중인 다양한 전공의 유학생이나 해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한 학기나 두 학기 한국을 방문하는 교환 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전통·현대 문화 예술 발전과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핵심, 심화 중심화 강좌로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 2.2. 한국 학생들을 위한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 교과목의 신규 개설 차원

2022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가 처음 개설될 당시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한정해 수강 신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강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학생들과 상호 작용을 할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으며, 한국 학생들에게도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상호 문화 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계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2023년부터는 수강 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강좌 운영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수강생 변화 추이는 <표 2>와 같다.

<표 2>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수강생 변화 추이

	2022	2023	2024
외국인 유학생 수/ 언어권	11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베트남 중국 대만	8 중국	11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한국인 재학생 수	0	11	8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23년 수강 신청 제한이 사라지자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한국 학생들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상호 문화 간 이해 교육도 가능하게 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3.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1)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구성, 2)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내용의 주안점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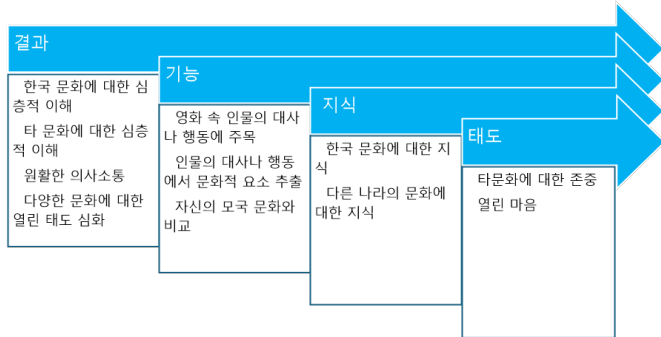
### 3.1.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구성

#### 3.1.1.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개요와 목표

2024년도 2학기에 개설된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교과목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강좌는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미디어와 영화에 등장하는 삶의 여러 양태들과 다양한 인물 유형들을 통해 그 안에서 한국의 언어, 전통, 가치관,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의 과거, 현재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모국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열린 태도를 함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개요를 통해 우리는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목표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림 2>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목표

<그림 2>를 통해 이 강좌에서는 Deardorff의 파리미드 모델처럼, ‘태도’ 차원에서 ‘타문화에 대한 존중, 열린 마음’으로 ‘지식’ 차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능’ 차원에서 ‘영화 속 인물의 대사나 행동에 주목’해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고 ‘자신의 모국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타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원활한 의사소통,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가 심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1.2.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구성

2024학년도 2학기 세 번째로 개설된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강좌에서는 ‘음식<sup>10)</sup>’을 주제로 한국 영화를 선정하여 그 영화에 나타난 한국어와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 하였다. ‘음식’ 주제는 인간 생활에서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분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표 3>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구성

주요재	린다시비텔로외(2017), 인류 역사에 담긴 음식 문화 이야기, 린. 마빈해리스(2018),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복혜자(2016), 한국의 음식문화와 스토리텔링, 백산출판사. 주영하(2011), 음식인문학, 휴머니스트. 제리 퀴시오((2019), 디저트의 모험, 프시케이슌.		
강의안내	1. 발표 관심 있는 한국 혹은 모국의 음식 문화 주제를 하나 정해,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 10분 내외 영상으로 제작하여 e-러리에 업로드한다. 2. 보고서 관심 있는 한국 혹은 모국의 음식 문화 주제에 대한 발표 후,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평가	중간 20%, 발표 20%, 기말 20%, 보고서 20%, 수업 참여도 10%, 출석 10%		
주	강의내용	교수방법	과제및기타
1	강의안내 강의 계획 및 강의 진행 방법 제시	강의 - 토론	
2	인류 역사에 담긴 음식 문화 이야기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한국의 음식문화	''	
3	<리틀 포레스트(2018)>에 나타난 한국어와 음식 문화	''	
4	달달함의 유혹, 디저트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2008)>에 나타난 한국의 서양 디저트	''	
5	<봄날은 간다(2001)>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문화	''	
6	중간평가(서술형, 이ური 퀴즈로 진행)	''	
7	<극한직업(2019)>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문화	''	
8	<밥정(2020)>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문화	''	
9	<더테이블(2017)>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문화	''	
10	<하나식당(2018)>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문화	''	
11	학생발표(1): 모국의 음식 문화 - 학생 개인 영상 업로드	''	
12	학생발표(2): 모국의 음식 문화 - 학생 개인 영상 업로드	''	
13	<각자의 미식(2019)>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문화	''	
14	한국 음식 체험 <춘천막국수> - off line	''	
15	기말평가(서술형, 이ური 퀴즈로 진행)	''	

누구나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식 차원에서 특별한 문화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음식’과 관련된 영화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보여주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 이정원(2024)에서도 한류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한식’은 그 중심에서 한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상징하는 핵심적 요소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최중 선정된 영화와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3〉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에서 선정된 영화와 그 이유

영화	장르	선정 이유
리틀 포레스트 (2018)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영화가 원작이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이 등장하고, 서양 음식도 함께 등장</li> <li>취업 혹은 연애로 고뇌하고 성장, 변화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모습</li> </ul>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트릭(2008)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서양 디저트의 등장</li> <li>개인의 트라우마와 상처, 성장</li> </ul>
봄날은 간다(2001)	로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면 먹을래요?’의 명대사 등장</li> <li>청춘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li> </ul>
극한직업(2019)	코미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갈비 통닭 치킨집 등장</li> <li>웃음 유발 코믹 수사물</li> </ul>
밥정(2020)	다큐멘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을 재료 삼아 음식을 만드는 방랑 식객 임지호 셰프의 요리 등장</li> <li>‘밥’으로 나누는 ‘정’</li> </ul>
더테이블(2017)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피숍’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양한 음료와 관계의 등장</li> </ul>
하나식당(2018)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키나와 배경의 하나식당 요리 등장</li> <li>마음까지 채워주는 마법의 공간으로서의 하나식당</li> </ul>
각자의 미식(2019)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 대학이 소재한 강원도의 강릉을 배경으로 한 강릉 대표 음식의 등장</li> <li>모든 음식에 어린 각자의 추억</li> </ul>

이 중 〈리틀 포레스트(2018)〉는 여주인공이 도시라는 케도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일상의 농촌 영화이다. 이 영화는 원래 일본 모리 준이치(森淳一) 감독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リトル・フォレスト 夏・秋・冬・春, 2014~2015)가 원작으로, 한국과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소재는 ‘농촌’과 ‘로컬 푸드’이다. 한국과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며 농촌에서 제철에 나는 음식 재료로 만든 로컬 푸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음식으로는 수제비와 식혜, 토마토, 밤조림, 꽃감 등이다. 일본 영화에서는 된장국, 으름겉질 볶음, 낫토 떡의 일본 고유의 음식 문화가 나온다. 한국 영화에서는 장떡과 막걸리, 배추전, 오이 콩국수, 시루떡, 떡볶이가 한국 음식의 일상을 채운다. 또한 두 영화에서는 파스타, 누텔라, 케이크, 빵, 크렘브뤼레 등의 서양 음식과 혼종성이 나

타난다.<sup>11</sup>

〈리틀 포레스트(2018)〉는 일본 영화가 원작이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이 등장하고, 서양 음식도 함께 등장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구자는 〈리틀 포레스트(2018)〉를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화로 선정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배경으로 취업 혹은 연애로 고뇌하고 성장, 변화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모습이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다양한 한국 음식의 등장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영화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3.2.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내용의 주안점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내용의 주안점은 1)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내용 추출을 위한 교수자의 질문, 2)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수자 질문과 학습자 반응 양상 분석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3.2.1.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내용 추출을 위한 교수자의 질문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두 시간가량의 긴 영화에서 어느 장면이 주목하고, 그 장면에서 언어 문화 관련 교육 내용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이때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중요하다. 다음 3.2.2.항에 제시된 교수자의 질문은 학습자에게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무엇이고, 그것은 한

11 진은경, 『일상성으로 본 농촌영화 비교: 한국과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19(1), 문학과환경학회, 2020, 124쪽.

국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탐구형 질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 항에 제시된 교수자의 질문이 어떻게 학생의 사고와 탐구를 활성화 시키는가? 학생의 사고와 탐구를 활성화시키는 특징을 지닌 핵심 질문은 수업 한 번으로 최종적인 답을 얻어내거나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핵심 질문의 목적은 단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활성화시키고, 탐구를 촉진하며, 사려 깊은 학생 질문을 포함한 보다 많은 질문을 촉발하는 것이다. 핵심 질문은 도발적이고 생산적이다. 이 같은 질문과 씨름하면서 학생들은 자칫 모호하게 덮일 뻔했던 화제에 대해 깊이 있고 풍요롭게 탐구할 수 있게 된다.<sup>12</sup>

다음 항에서 <리틀 포레스트(2018)>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요소 추출을 위한 교수자의 질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2.2. <리틀 포레스트(2018)>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수자 질문과 학습자 반응 양상 분석

<리틀 포레스트(2018)>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수자 질문과 학습자 반응 양상 분석은 1) 겨울: 도시에서 상처받은 혜원의 귀향, 2) 봄-여름: 상처의 극복, 3) 가을: 엄마와의 관계 회복 4) 다시 겨울: 새로운 시작과 기대감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 3.2.2.1. 겨울: 도시에서 상처받은 혜원의 귀향

<리틀 포레스트(2018)>에서 혜원은 임용시험 실패로

인한 충격과 좌절감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고향에 돌아온 혜원은 허기를 느끼고 채우기 위해 밭에서 배추를 따서 배추 된장국을 끓여 먹지만 허기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혜원에서 '고향집', '음식'이란 어떤 의미 일지에 대해 다음 <그림 3>과 같이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국과 찌개의 차이, 모국에서 즐겨 먹는 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0) 혜원, 고향집, 음식

- 혜원에게 고향집에서의 '음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 임용 시험을 준비하다 혜원은 왜 고향집으로 돌아왔을까요?
- '인스턴트 음식'과 '허기'

---

### 1) 배추 된장국\_집에 오자마자 먹은 첫 음식



-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 된장국을 먹어 본 적 있나요?
- 한국에서 찌개와 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월까요)?
- 여러분 나라에선 어떤 국을 즐겨 드시나요?

<그림 3> 혜원에게 '고향집, 음식'의 의미와 관련된 질문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습자 모두 고향집이란 '안락한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였고, 도시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도시'에서 '취업에의 좌절,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제시된다고 보았다. 도시에서의 치열한 경쟁적인 삶은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함께 공감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유학생들 모두 '국과 찌개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각자의 나라에서 즐겨 먹는 국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학습

12 정혜승·이원미 역, 『핵심 질문: 학생에게 이해의 문 열어주기』,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6, 26~27쪽. Jay McTighe & Grant Wiggins, *Essential Questions: Opening Doors to Student Understanding*, ASCD, 2013. (오현아, 「문법으로 시 읽기: 기능주의 관점에서 인지언어학적 접근으로서 '문법으로 시 읽기' 과정에 나타난 예비 국어 교사의 문법 개념화 양상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53, 한국문법교육학회, 2025, 249쪽에서 재인용)

자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채소국이 유명해서 ‘토마토, 배추, 당근, 샐러리’ 등의 다양한 채소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학습자는 ‘베트남에는 맛있는 국이 많지만 단호박국이 맛있다’고 하였고, 중국 학습자는 ‘중국에서 유명한 토마토 계란국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는 ‘우즈베크에서 대표적인 수프 요리인 슈르빠를 좋아한다’고, 몽골 학습자는 ‘고기를 넣어 끓인 국을 자주 먹는다’고 하였다.

혜원은 눈을 치울 때 알맞은 음식으로 ‘수제비’와 ‘배추전’을 들었는데, 유학생들의 모국에서 더위나 추위에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지, 고모와 이모의 친밀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다음 <그림 4>와 같이 질문을 구성하였다.

2) 수제비: 눈을 치울 때 알맞은 음식 / 배추전

수제비와 배추전	혜원에게 수제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원은 왜 수제비가 눈을 치울 때 알맞은 음식이라고 했을까요?</li> <li>□ 여러분 나라에선 더위나 추위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li> </ul>

3) ‘고모는 고모다, 이모가 아니다’

혜원과 고모	영화 대사로 보는 한국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li> <li>□ 여러분 나라에서 고모와 이모는 조카와 어떤 관계를 맺나요?</li> </ul>

<그림 4> ‘추위나 더위에 즐겨 먹는 음식’, ‘이모, 고모’와 관련된 질문

인도네시아 학습자의 경우에는 일년 내내 더운 편이라 아주 더울 때는 음식 말고 코코넛 밀크를 음료로 자주 마신다고 하였고, 고모 혹은 이모와 조카의 친밀감은 사람마다 다른데 한국처럼 이모와 조카가 더 친밀한 느낌은 없다

고 하였다.

베트남 학습자는 ‘더울 때 과일 주스를 즐겨 먹고, 추울 때 휘귀나 스프를 즐겨 먹는다’고 하였고, ‘특별히 이모와 조카가 친밀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

중국 학습자는 ‘여름에는 썬라편을 좋아하고, 좀 신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였고, ‘이모와 조카의 관계가 특별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는 ‘추울 때는 글로그를, 더울 때 쇼르바를 먹는다’고 하였고, ‘친척뿐만 아니라 옆집 이웃들과도 사이 좋게 지낸다’고 하였다.

몽골 학습자는 ‘추운 날에 보르츠(건조 고기)와 수테차(밀크티)를 즐겨 먹는다’고 하였고, ‘고모와 이모는 모두 조카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특히 이모는 조카에게 둘째 엄마처럼 돌봐 주며 가족 행사와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혜원은 땀을 뺀 후에는 술이 필요하다면서 누룩으로 술을 빚는데, 모국에서 땀을 흘리고 나서 즐겨 먹는 술이 있는지, 혜원이 왜 최고의 안주는 알싸한 추위와 나눠 마실 사람이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다음 <그림 5>와 같이 질문을 구성하였다.

5) 땀을 뺀 후에는 술이 필요하다  
옛기름은 단맛을 내지만 누룩은 어른의 맛을 낸다.

영화 대사에서 보는 한국어 문화	영화 대사로 보는 한국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원은 왜 땀을 흘리고 나면 술이 필요하다고 했을까요?</li> <li>□ 여러분 나라에선 땀을 흘리고 나서 즐겨 먹는 전통술이 있나요?</li> <li>□ 혜원은 왜 최고의 안주는 ‘알싸한 추위와 나눠 마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li> </ul>

<그림 5>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술’과 관련된 질문

인도네시아 학습자의 경우에는 ‘땀을 흘리고 나서 즐겨 먹는 전통 술이 있는데 legen이라는 전통술로, 과일로 만드는 술입니다. 맛은 달고 마시고 나면 시원해질 겁니다’라고 하였다.

베트남 학습자는 ‘땀을 흘리고 나서 즐겨 먹는 전통 술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찹쌀로 만든 술을 자주 드신다’고 하였다.

중국 학습자는 ‘땀이 나서 마시는 술이 특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는 ‘무슬림 종교가 있어 술을 전혀 안 마신다’고 하였고, 몽골 학습자는 ‘에이락이라는 전통 음료(말젖으로 만든 발효 음료)가 있는데, 여름에 일을 마치고, 땀을 흘린 다음에 마시는 전통 술이다’라고 하였다.

### 3.2.2.2. 봄 - 여름: 상처의 극복


혜원은 농촌에서 제철에 나는 식재료들을 활용해 봄에는 꽃 파스타를, 여름에는 크림 브뤼레, 오이 콩국수 등을 만든다. 고향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불러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도시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 간다. 그리고 크림 브뤼레를 통해 친구 은숙과의 다툼에서 화해하기도 하고, 자신과는 달리 시험에 합격한 남자 친구의 전화를 피하기만 하다 이제는 축하하며 결별을 고하기도 한다. 혜원의 엄마가 기분을 단숨에 바꾸는 요리로 해 주었던 크림 브뤼레, 오이 콩국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그림 6>과 같이 질문을 구성하였다.

인도네시아 학습자는 기분을 단숨에 바꾸는 요리로 ‘엄마의 집밥’을 들었고, ‘너무 맛있어서 행복해서 울고 싶다’고 하였다. 베트남 학습자는 엄마와 함께 요리를 즐겼고, 이것이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하였다. 중국 학습자는 ‘닭발찜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였고,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는 ‘기분을 단숨에 바꾸는 요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겨울방학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모님께 파스타를 만들어 드렸는데, 넘 좋아하셔서 좋았다’고 하였다. 몽골 학습자는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따뜻한 호르츠 국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였다.

6) 봄, 꽃 파스타

봄 : 쑥, 감자, 농사	꽃 파스타
	

10) 여름, 은숙과 혜원의 다툼과 화해, 크림 브뤼레  
 \*이럴 때 엄마는 마법사 같다. 내 기분을 이렇게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마법사\*

크림 브뤼레	영화 대사로 보는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분을 단숨에 바꾸는 요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li> <li>누군가를 위해 그러한 요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li> </ul>

11) 한여름, 오이콩국수

오이콩국수	영화에 나온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콩국수를 먹어본 적 있나요? 맛은 어땠나요?</li> <li>더울 때 즐겨 찾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어떤 음식인가요?</li> </ul>

13) 여름, 남친에게 전화한 혜원

남친에게 전화하는 혜원	영화 대사로 보는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혜원은 남친에게 전화해 합격을 축하하며 결별을 말합니다. 겨울에 떠나와 여름에 와서야 결별을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li> <li>‘내가 여기로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온 것’이라는 혜원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li> </ul>

<그림 6> ‘꽃 파스타, 크림 브뤼레, 오이 콩국수’와 관련된 질문

### 3.2.2.3. 가을: 엄마와의 관계 회복

혜원의 농촌 생활은 어린 시절 요리를 해 주던 엄마를 떠올리고 가상의 요리 대결 과정에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대학 합격 후 자신만의

삶을 펼치기 위해 떠났던 엄마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혜원은 엄마에게 온 편지에 ‘그 동안 엄마에게는 자연과 요리, 그리고 나에게 대한 사랑이 그만의 작은 숲이었다.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라고 답장을 쓰게 된다. ‘음식’은 혜원에게 엄마의 정성을 떠올리게 하고, 도시에서 느꼈던 정서적 허기를 극복하고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혜원이 이곳에 뿌리내리길 바란 엄마 마음처럼 의지가 되는 정신적 공간, 엄마에게 편지를 쓰게 된 혜원의 마음’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림 7>과 같이 질문을 구성하였다.

아해서 해변가를 산책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몽골 학습자는 ‘몽골의 초원은 제게 삶의 의지를 주는 공간으로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 3.2.2.4. 다시 겨울: 새로운 시작과 기대감

겨울에 떠난 혜원은 다시 1년 후 돌아와 ‘아주심기’를 하려고 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이 잠시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니 외출한 사이 집 문은 열려 있고, 커튼은 펴져 있다. 이를 보고 혜원은 밝게 웃는다. ‘혜원이 밝게 웃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심기하고픈 공간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그림 8>과 같이 질문을 구성하였다.

15) 가을, 밤조림, 단감

밤조림	단감

17) 겨울, 떠난 혜원/1년 후 돌아온 혜원

떠난 혜원	1년 후 돌아온 혜원 "아주심기"를 하러 온 혜원

16) 가을, 엄마의 마음을 깨닫게 된 혜원

엄마의 마음을 깨달은 혜원	영화 대사로 보는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원이 이곳에 뿌리내리길 바란 엄마의 마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의지가 되는 정신적 공간이 있나요?</li> <li>□ '그 동안 엄마에게는 자연과 요리, 그리고 나에게 대한 사랑이 그만의 작은 숲이었다.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는 혜원의 독백에서 '작은 숲'은 무엇일까요?</li> <li>□ 엄마에게 답장을 쓰게 된 혜원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li> </ul>

18) 고향으로 돌아와 잠시 외출했다 돌아온 혜원

외출에서 돌아온 혜원	영화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출한 사이 열린 집 문과 펴져 있는 커튼을 보고 혜원이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li> <li>□ 여러분이 "아주심기" 하고픈 공간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li> </ul>

<그림 7> '엄마에게 편지를 쓰게 된 혜원의 마음'에 관한 질문

<그림 8> '아주심기를 하려고 떠났다 다시 돌아온 혜원'에 관한 질문

인도네시아 학습자는 '제가 할머니 댁에 갔을 때는 제 마음을 안정시키곤 하고 정신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추억이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베트남 학습자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이 많은 우리집'이라고 하였고,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는 '바다를 좋

인도네시아 학습자는 "아주심기" 하고픈 공간을 만났 적이 있는데 작년에 템플 스테이 했을때 고기 안 먹고, 매일매일 물소리와 자연의 향기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편안함을 주는 곳'이라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때 시간이 좋았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라고 하였고, 몽골 학습자는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은 아주심기하고 싶은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학습자들과 연구자는 '음식'을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모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식' 차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 확장'을 바탕으로 '기능' 차원에서 '영화속 인물의 대사나 행동에 주목'해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고 '자신의 모국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타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원활한 의사소통,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심화'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삶의 다양한 고민과 해결 방식, 인생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또한 문화간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아닌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 4. 나오며

이 연구에서는 K대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필수 과목인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주목하여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통한 학습자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개설 목적 및 특성을 살펴보고, 3장에서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필수 과목으로서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개설 목적 및 특성을 1)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교과목의 신규 개설 차원과 2) 한국 학생들을 위한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 교과목의 신규 개설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실행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1)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 구성, 2)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내용의 주안점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강좌에서는 Deardorff의 파리기드 모델처럼, '태도' 차원에서 '타문화에 대한 존중, 열린 마음'으로 '지식' 차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능' 차원에서 '영화속 인물의 대사나 행동에 주목'해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고 '자신의 모국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타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원활한 의사소통,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강좌에서는 '음식'을 주제로 한국 영화를 선정하여 그 영화에 나타난 한국어와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음식' 주제는 인간 생활에서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분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식 차원에서 특별한 문화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영화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보여주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영화들 중에서도 <리틀 포레스트(2018)>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하였는데, <리틀 포레스트(2018)>는 일본 영화가 원작이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이 등장하고, 서양 음식도 함께 등장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구자는 <리틀 포레스트(2018)>를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화로 선정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배경으로 취업 혹은 연애로 고뇌하고 성장, 변화하는 다양한 청춘들의 모습이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한국 음식의 등장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영화라고 보았다.

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와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내용의 주안점은 1)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내용 추출을 위한 교수자의 질문, 2)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수자 질문과 학습자 반응 양상 분석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수자의 질문은 학습자에게 ‘영화를 통해 본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무엇이고,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탐구형 질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리틀 포레스트(2018)>에 나타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수자 질문과 학습자 반응 양상 분석은 1) 겨울: 도시에서 상처받은 혜원의 귀향, 2) 봄-여름: 상처의 극복, 3) 가을: 엄마와의 관계 회복 4) 다시 겨울: 새로운 시작과 기대감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학습자들과 연구자는 ‘음식’을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모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식’ 차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 확장’을 바탕으로 ‘기능’ 차원에서 ‘영화 속 인물의 대사나 행동에 주목’해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고 ‘자신의 모국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

적 이해, 타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원활한 의사소통,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심화’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삶의 다양한 고민과 해결 방식, 인생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아닌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영화를 활용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 한국어 문화교육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강지은, 「학습자 중심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연구』 5,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6.
- 권순희, 「국어 문화 교육 내용의 반성과 개선 방안: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0(5),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_\_\_\_\_, 「다문화시대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국어교육학연구』 38, 국어교육학회, 2010.
- 김금숙, 「한국 학생과 유학생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 연구: 토의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7,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정은, 「문화간 의사소통 관점에서 한국어교재 분석」, 『외국어교육』 14(2), 한국 외국어교육학회, 2007.
- 김해진·이동훈, 「한국인의 세대별 문화성향 차이와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60(3),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2021.
- 민현식, 「(한)국어 문화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회』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 \_\_\_\_\_,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외국어교육』 10(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3.
- 민현식·박재현,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2006(5),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 박영순,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2006.
- 배고운,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사례: 탄뎀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회』 11(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 오지혜·이유경,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한 말하기 평가 구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 오현아, 「문법으로 시 읽기: 기능주의 관점에서 인지언어학적 접근으로서 '문법으로 시 읽기' 과정에 나타난 예비 국어 교사의 문법 개념화 양상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53, 한국문법교육학회, 2025.
- \_\_\_\_\_, 「문화간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한중 영화 속 말차레가지기 양상에 대한 비교 언어문화적 고찰」, 『한중언어학회』 26, 한중언어학회, 2009.
- 이미향, 「학습자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재 고찰」, 『이중언어학』 42, 이중언어학회, 2010.
- 이승연·이유경·최은지·이선영, 『한국문화교육론』, 도서출판 하우, 2021.
- 이정원, 「한류 콘텐츠 속 한식의 의미」, 『한국언어문화』 85, 한국언어문화학회, 2024.
- 이정희, 「기아메 브누아,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환경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연구: Byram(1997)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64, 이중언어학회, 2016.
- 정다운·손다정,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말하기 전략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회』 17(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정다운·손다정·박혜영,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한 말하기 평가방향」,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 정혜승·이원미 역, 『핵심 질문: 학생에게 이해의 문 열어주기』,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 조위수·윤주원, 「아랍어·한국어 학습자의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문화 교육 내용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3),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 진은경, 「일상성으로 본 농촌영화 비교: 한국과 일본의 『리를 포레스트』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19(1), 문학과환경학회, 2020.
- 최지영,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부유학생 대상 교양수업의 설계 및 운영 사례 연구」, 『대학교양교육연구』 10(2), 배재대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25.
- Deardorff, D. K.,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of International Education* 10, 2006.

## Abstract

## Research o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Global Korean Studies Major Courses to Enhanc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Focusing on the Cours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Media and Film>

Oh, Hyeon-Ah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mplementation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 in the cours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Media and Film, designed to enhance global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Focusing on the film Little Forest(2018), which integrates traditional Korean food and modern life themes, the study explores how learners develop intercultural awareness through Deardorff's(2006) pyramid model. By comparing Korean and their native cultures, students expanded cultural knowledge, deepened mutual understanding, and fostered openness toward diversity. The course demonstrated that film-based instruction effectively promotes empathy, reflection,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Cultural Edu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Global Korean Studies, Major Course, Little Forest, Korean Language, Korean Culture, empathy, solidarity

이 논문은 2025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